

## 진리 기능주의와 혼합의 문제<sup>†‡</sup>

김동현\*

혼합 연언의 문제와 혼합 추론의 문제 등을 통칭하는 혼합의 문제는 진리 다원주의를 위협하는 난제이다. 이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다원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클 린치의 진리 기능주의에 의하면 진리 속성은 단일하지만 그 속성이 기저 속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관계는 논의 영역에 따라 다원적이다. 이에 따라 린치는 진리 다원주의를 고수하면서도 혼합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린치의 기능주의가 혼합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해결이 가능한 이유는 기능주의가 진리의 중요한 역할에서 일원론과 차이가 없는 이론으로 후퇴했기 때문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본고는 혼합의 문제의 핵심 쟁점인 복합 명제에 주목한다. 기능주의가 제안하는 곧장-참(plain truth) 관계에 의거하여, 복합 명제의 의미가 원자 명제의 의미로부터 조합됨을 진리 조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진리 발현 관계의 다원성이 누락된 설명과 차이가 없게 됨을 본고는 논증할 것이다. 따라서 일원론적 진리론에 비해 기능주의를 선택할 이론적 동기가 침식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주요어】 기능주의, 진리 다원주의, 혼합의 문제, 복합 명제, 조합성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3906)

† 이 논문의 초고는 2015년 1월 한국논리학회 겨울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필자의 실수와 미진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논평자와 연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kimdh22@sejong.ac.kr.

## 1. 진리 다원주의

철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져 온 실재론 대 반실재론 논쟁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이 완전히 거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양측의 견해는 각각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닌다.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이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온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실재론과 반실재론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진리 개념 외에도 논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진리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된다. 이것이 현대적인 진리 다원주의(the alethic pluralism)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크리스핀 라이트의 다원주의가 등장한 배경이다. 그의 다원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되는 진리에 대한 평범한 상식(platitude) 즉 최소 진리(minimal truth)는 논의 영역에 상관없이 공유되지만, 그러나 논의 영역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진리 술어가 있다는 것이다.(Wright 1992) 각각의 논의영역들을 구획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식론적 제한이며 그에 따라서 진리와 초주장가능성(superassertibility)이 일치하는 논의 영역과 달라지는 영역이 서로 구획된다. 그리고 인식론적 제한은 인지적 지휘(cognitive command) 즉 동일한 증거가 주어진다면 모두가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원칙과 광역 우주적 역할(wide cosmological role) 즉 미시 세계의 물리적 사실들과 같이 명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넘어서는 사실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역할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기초한다는 것이 그의 다원주의의 골자이다.<sup>1)</sup> 이러한 진리 다원성에 기초하여 라이트는 철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져 온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클 린치의 진리 다원주의도 라이트와 유사한 동기를 공유한다. 다양한 논의 영역<sup>2)</sup>에 속하는 명제들의 진리를 일

1) 다만 라이트의 다원주의가 적용되는 대상은 진리 술어이며, 진리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은 라이트 스스로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가 진정한 진리 다원주의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Wright (2001) 참조.

원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하는 전통적인 이론들은 그동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예컨대 진리 대응론은 “텅스텐은 질산에 용해된다.”와 같은 경험과학의 진술을 대응적 참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윤리적 혹은 수학적 논의 맥락에서는 이 설명이 만족스럽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린치는 영역 문제(scope problem)라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 어법에서는 비록 “참이다”라는 단일한 용어가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연과학이나 윤리 등 각각의 논의 영역에 따라 true<sub>1</sub>, true<sub>2</sub>, true<sub>3</sub> 등 각기 다른 진리 속성이 모두 똑같이 “참이다”로 표현되고 있다는 답변이 영역 문제를 극복할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다.

그러나 크리스틴 타폴렛은 라이트의 다원주의를 겨냥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논증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논증은 혼합 추론의 문제(the problem of mixed inferences)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문제는 연언문이나 선언문 등 복합 명제의 진리와 진리 다원주의를 조화시키는 이론바 혼합 연언(mixed conjunction)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모두를 혼합의 문제라 통칭하고자 한다. 혼합의 문제는 진리 다원주의에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점은 오늘날 진리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온건한(modest)’ 다원주의에 속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sup>3)</sup> 페더슨과 C.D. 라이트에 따르면, 모든 논의 영역에 걸쳐 참인 문장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속성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한(strong)’ 다원주의와 달리, 온건한 다원주의는 전통적인 일원론적 진리론이 받아들여 온 직관 즉 모든 논의 영역에 공통되는 ‘하나(One)’로서의 진리 속성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는다.<sup>4)</sup> 진리 다원주의라는 표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는 주장이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럼에도 진리 다원주의의 대다수를 점하는 온건한 다원주의자들이 단일한 공통적 진리 속성의 존재를 수용한다는 사실은, 진리의 다원성을 지탱하는 작업이 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

2) 린치는 특별히 탐구 영역(domain of inquiry)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본고에서는 좀 더 친숙한 용어인 “논의 영역”으로 통일한다.

3) Pedersen and Wright (2013), p. 3.

4) Ibid., pp. 96–7.

임을 암시한다.

이에 혼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리 다원주의 진영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중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시도는 마이클 린치의 **진리 기능주의**(the alethic functionalism)이다. 그의 2009년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리를 ‘하나이지만 여럿(One and Many)’이라고 분석하는 그의 제안은, 여타의 온건한 다원주의와 마찬가지로 다원주의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다원주의의 주요 난점인 혼합의 문제에 대한 극복을 시도한다.

필자는 린치의 기능주의가 혼합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 해결이 만족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기능주의적 진리가 중요한 면에서 일원적 진리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다원주의를 채택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일원론적 진리에 비해 다원론적 진리 개념은 뚜렷한 매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물론 린치의 기능주의가 일원론으로의 후퇴가 아니냐는 우려는 다른 논문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지적이다.<sup>5)</sup> 그러나 본고는 다른 측면, 즉 의미의 조합적 설명이라는 진리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기능주의에 대한 새로운 비판을 제시할 것이다.<sup>6)</sup>

## 2. 혼합의 문제

혼합 추론의 문제는, 타당한 연역 추론을 구성하는 명제들이 각각 지닌 진리 속성의 다원성이, 전제의 참이 결론에서 보존된다는 표준적인 타당성 개념과 충돌한다는 문제로 요약된다.<sup>7)</sup> 진리 다원주의를 따라 아래의 문장

5) 예를 들면, Pedersen (2011), pp. 222–3.

6) 본고에서 다루는 기능주의 외에도 많은 온건한 다원주의자들이 혼합의 문제에 해결을 시도한다. 특히 페더슨의 선언주의(disjunctivism)는 주목할 만한 방안이다.(Pedersen 2006, 2010)

7) 타풀렛의 논증은 라이트의 최소 진리 즉 다원주의적 진리들이 공유하는 최소 교집합으로서 어떠한 종류의 진리라도 당연히 만족해야 하는 진리의 최소 공유 속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한다. 이 때문에 타풀렛이 서술하는 혼합

A는 윤리적 담론의 영역에 속하므로 진리 속성  $T_1$ 을, B는 과학적 담론의 영역에 속하므로 진리 속성  $T_2$ 를 담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 A: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 B: 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약  $3.0 \times 10^8 \text{m/s}$ 이다.

그런데 A&B로부터 A를 이끌어 내는 타당한 연역 논증에서, 전제의 진리는 결론에서 보존된다. 여기서 결론 A가 담지하는 진리는  $T_1$ 이다. 그렇다면 전제가 담지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A&B가 제 3의 진리 속성인  $T_3$ 을 가진다고 대답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러한 대답이 옳다면 위 추론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보존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의 참이 결론에서 보존된다는, 즉 전제가 지니는 **바로 그 진리 속성**이 결론에서 상실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 다원주의를 고집하기 위해, 전통적인 타당성 개념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추론에서 보존되는 진리가 결론 A를 따라  $T_1$ 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A&B로부터는 A 뿐 아니라  $T_2$ 를 담지하는 B도 타당하게 추론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한 답변은 전제 A&B는 그것의 구성 연언지들의 진리 속성  $T_1$ 과  $T_2$ 를 모두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 역시 타당성 개념과 조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타당성 개념은, **최소한** 전제가 참인 **만큼** 결론도 참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대안을 따르면, 연언제거 추론에서 전제가 가진 만큼의 진리 속성 중 일부가 결론에서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 말하자면 타톨렛의 논증은 일종의 양도논법이다. 다원주의는 A와 B가 동일한 방식으로 참이 된다고 인정하고 일원론에 굴복하든가, 아니면 A와 B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참이 된다는 입장을 무리하게 고수해야 한다. 앞의 뿔을 선택하면 다원주의를 포기해야 하고, 뒤의 뿔을 선택하면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sup>8)</sup>

---

의 문제는, 온건한 다원주의를 중심에 둔 본고의 재구성과 약간의 기술상의 차이가 있다.

8) Tappolet (1997). 볼은 다원주의가 다치논리를 통해 혼합 추론의 문제를

혼합 추론의 문제는 혼합 연언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이다. A&B로부터 A를 이끌어 내는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은 곧 A&B의 참이 A에서 보존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보존된 원자 명제 A의 참이 다원적 참이라면,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은 A&B의 참을 어떤 진리 속성으로 규정해야 진리 다원주의의 주장과 추론의 올바른 타당성 개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느냐이다. 연언문 이외의 다른 복합 명제 그리고 그것이 포함된 타당한 추론에서도 문제는 동일하다.<sup>9)</sup>

필자가 보는 혼합의 문제의 핵심은, 원자 명제들이 지닌 다원적인 진리 속성이 그 명제들로 조합된 복합 명제가 가지는 진리 속성으로 승계되지 (inherited)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승계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진리의 단일성이 궁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진리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진리 다원주의는 난관에 봉착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다원주의자 중 한 명은 에드워즈이다. 그는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 사이의 진리값 결정의 방향을 일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A&B는 A의 참임과 B의 참임에 ‘의해서(in virtue of)’ 참이지만,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A&B와 A, 그리고 B 사이의 진리값이 결정되는 관계는 쌍조건문 (1)에 따라 이해되는데, (1)은 양변의 진리값이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 일치한다는 것만을 말해줄 뿐 어느 한 쪽의 결정 방향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 (1) A&B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A가 참이고 B가 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에드워즈가 내세우는 근거는, ‘참이다’를 ‘사실과 대응한다’로 대체

---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만족스러운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Beall (2000), Tappolet (2000), Lynch (2004) 참조.

9) 선언은 연언과 부정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고 부정은 (다원적) 참 개념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혼합 선언의 문제와 혼합 연언의 문제는 사실은 같은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Cotnoit (2009) 참조.

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A가 사실과 대응하고 B가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A&B는 사실과 대응한다. 하지만 우리가 연언적 사실을 존재론적으로 궁정하지 않는 한, 그 역방향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에드워즈는 혼합의 문제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답한다. A&B는 그저 A의 참임과 B의 참임에 의해서 참이며, 이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A&B로부터 A로의 추론은 일원적 진리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다원주의적으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코트노어는 에드워즈의 해결방안이 진리 속성의 무한 증식을 가져올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일원적 진리 속성에의 궁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A와 B는 각각 진리 속성  $T_1$ 과  $T_2$ 를 가진다고 하자. 하지만 아마도 다원적 진리 속성이 이 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A와 B의 진리에 의해 “곧바로” 주어진다고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A&B의 진리 속성  $T_c$ 는, A는  $T_1$ 이거나  $T_2$ 이거나…  $T_n$ 이고 그리고 B는  $T_1$ 이거나  $T_2$ 이거나…  $T_n$ 임이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복합 명제인 A&(B&C)의 진리 속성인  $T_{cc}$ 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다른 복합 명제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의가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코트노어는 진리 다원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주의는 진리 속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다원주의인 만큼, 이처럼 논리적으로 무한 증식하는 속성은 진정한 속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코트노어가 생각하는, 에드워즈의 해결이 지닌 더 심각한 문제는 논의 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연언문의 진리는 ‘두 연언지가 동시에 참임’이라는 단일한 진리 속성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코트노어는 다원주의가 처음부터 타풀렛의 딜레마를 피할 필요 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A&B와 같은 복합 명제의 진리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 명제가 지니는 다원적 진리 속성들에 의해 정의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일원적 속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과-또는-수임 (being an-apple-or-a-number)’이라는 선언적 속성을 ‘사과임’과 ‘수임’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사과임’과 ‘수임’을 동일한 속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sup>11)</sup> 마찬가지로 코트노어는 다원주의자들이

---

10) Edwards (2008).

혼합 추론이나 복합 명제에서 단일한 선언적 진리 속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혼합의 문제 때문에 진리 다원주의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sup>12)</sup>

에드워즈와 코트노어 사이에 오간 논쟁에서, 필자는 온건한 다원주의 진영이 공유하는 한 가지 공통점에 주목한다. 그 공통점은, 온건한 다원주의자들이 원자 명제의 진리와 복합 명제의 진리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들에 의하면 다원적 진리 속성은 오직 원자 명제만이 담지하며, 복합 명제는 그 구성요소 원자 명제의 진리에 의존하는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이 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린치의 해결책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이는 혼합의 문제에 대처하는 온건한 다원주의의 공통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 공통 전략을 린치의 경우에 집중해서 검토해 보자.

### 3. 린치와 혼합의 문제

모든 논의 영역에 공통되는 단일한 진리 속성을 긍정하는 온건한 다원주의가, 논의 영역에 따라 다원적인 진리 속성이 그 단일한 진리와 **동일한 속성**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면 비일관적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건한 진리 다원주의자들은 ‘참임’을 ‘특정 논의 영역에서 속성 F(대응, 정합 등)를 가짐’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전자의 속성이 후자의 속성에 의존하는 구도를 제시함으로써 다원주의를 지켜낸다. 그 의존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온건한 다원주의 내에서 이론이 세분화된다.<sup>13)</sup> 예를 들어 에드워즈는 그 관계를 ‘체크메이트를 둘’과 ‘체스에서 이김’ 사이의 관계와 같

11) Cotnoir (2009), p. 479.

12) 코트노어의 비판에 대해 에드워즈는 그러한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결정되는 맥락은 모두 동일하게 논리적 논의 영역이므로, 그들은 설사 진리 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진리 속성은 논리적 논의 영역의 진리 속성으로 동일하다고 재반박한다. 그러므로 코트노어가 지적하는 것처럼 일원적 진리 속성의 긍정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dwards (2009) 참조. 그러나 에드워즈의 재반박은 그의 원래의 제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

13) Pedersen and Wright (2013), p. 3.

은 종류의 결정(determination) 관계로 본다. 체크메이트를 두었다는 것은 체스에서 이겼다는 것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논의 영역에서의 속성 F는 진리 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sup>14)</sup>

린치의 기능주의는 이 의존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발현(manifestation) 관계로 간주한다. 어떤 속성 F가 또 다른 속성 F\*의 개념적으로 본질적인 성질들이 F의 성질들의 부분집합임이 선형적인 오직 그 경우에만 F는 F\*를 발현한다. 그리고 발현 관계가 성립하는 속성을 승계적(immanent) 속성이라 부르는데, 진리 역시 승계적 속성의 하나이다. 만약 F를 ‘물리적 사실과 대응함’이라고 하고 F\*를 ‘참임’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사실과 대응한다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속성들은 진리의 세 가지 핵심(core truism)에 의해 고정되는 본질적 속성들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다. 예컨대 “눈은 회다”가 가지는, 실제로 눈이 흰 사실과 대응한다는 속성의 본질적 특징들은, 그 명제의 진리가 가지는 본질적 특징들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선형적이다. 이럴 때, 우리는 물리적 사실과 대응한다는 속성이 진리 속성을 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논의 영역에 따라 기저 속성은 대응 외에도 정합이나 초보증(superwarrant)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세 가지 핵심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적절한 진리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 받아들여야만 하는 몇 가지 자명한 원칙들이 있다. 린치는 그것을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 (2) 참인 명제는 객관적으로 참이다.
- (3) 참인 명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옳다.
- (4) 참인 명제는 탐구의 목표가 된다.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린치는 자신의 진리 이론이 의미론이 아닌 형이상학 이론이므로 다른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암묵적 믿음들을 정밀하게 이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즉 위의 핵심 원칙은 우리가 진리의 본

---

<sup>14)</sup> Edwards (2013) 참조.

질에 대해 일상적으로 명백하다고 받아들이는 암묵적 믿음들로 이루어진 이론(folk theory)을 통해 주어진다. 그의 진리 이론은 진리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이면서도 암묵적인 파악을 사전 전제하고 있으며, 린치도 이 점을 분명하게 시인한다.<sup>15)</sup> 핵심 원칙은 진리에 관한 가장 명백한 원칙들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은 진리 이론이 될 수 없으며 적절한 진리 이론은 이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함축해야 한다고 요구된다.<sup>16)</sup>

그런데 세 가지 핵심 원칙은 진리 속성이 수행하는 진리-역할 즉 기능을 기술한다. 그러므로 진리 속성의 ‘개념적으로 본질적인 성질’이 무엇인가도 위의 세 가지 핵심에 의해 고정(pin down)된다. 이것이 린치의 다원주의를 기능주의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유이다. 기능주의라는 명칭은 심리철학의 복수실현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마치 심리철학에서의 기능주의에서 심적 기능은 다양한 물리적 기저 속성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되는 것처럼, 진리라는 **단일한** 속성도 논의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저 속성에 의해 실현 가능하다는 아이디어이다.<sup>17)</sup>

이로부터 린치는 혼합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린치의 발현 관계 정의에 의하면 모든 속성은 자기 스스로를 발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

15) Lynch (2013), pp. 23–4. 그러므로 기능주의를 진리 개념의 **정의**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16) 린치에 의하면 진리가 진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특정한 역할 기술(description)을 진리가 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역할 기술들은 진리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상식(platitude)들의 총체에 의해 **전체론적으로** 규정된다. 이 점에서 린치의 진리 이론에서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은 위 세 가지 조건의 **연언**과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해석한 데이빗의 형식화는 린치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David (2013), p. 47 참조.

17) 하지만 진리 기능주의가 심리철학의 기능주의와 다른 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심적 속성의 실현이 후협적 문제인 반면에 진리 속성의 실현은 선협적이라는 차이이다. 그리고 심적 속성과 그것의 실현 속성과는 달리, 진리 기능주의의 F와 F\*는 인과력을 가지지 않는다.(David 2013, pp. 43–4) 이런 탓에 린치는 심리철학의 용어인 실현(realize)과 구분하여 발현(manifest)이라는 용어를 쓴다.

면 어떤 특징들의 집합이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선 험적으로 참이기 때문이다. 린치는 이와 같이 어떤 명제가 오직 그 명제가 가진 속성에 의해서만 진리 속성을 발현할 때 그 명제는 ‘곧장-참(plain truth)’이 된다고 부른다. 이제 린치의 말대로, 복합 명제의 진리값은 원자 명제의 진리값에 수반한다는 원칙이 “분명해 보인다”<sup>18)</sup>고 하자. 그렇다면 복합 명제의 진리는 그것의 구성요소 명제의 진리 속성에 의해서만 곧장-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명제의 진리는 특정한 기저 속성에 기반을 두어 발현된 것이라는 기능주의의 원칙은 복합 명제에도 동일하게 성립 한다. 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복합 명제의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원자 명제의 진리값에 기반을 둔다.  
그러므로 복합 명제는 곧장-참이기 때문에 참이다.<sup>19)</sup>

2절의 A, B와 같은 명제들의 진리는 각각 윤리적 영역의 기저 속성과 과학적 영역의 기저 속성에 강하게 기반을 둔(strongly grounded) 진리들이다. 반면에 복합 명제 A&B의 진리는, 비록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복합 명제가 가진 속성인 A와 B의 참에 의해 곧장-참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복합 명제와 단순 명제는 단일한 진리 속성을 공유 하지만, 단순 명제는 논의 영역에 상대적으로, 복합 명제는 단순 명제의 진리로부터 곧장 진리 속성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진리 속성의 단일성에 의해, 혼합의 문제의 발생은 원천 차단된다.

본고는 린치의 혼합의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만약 그 해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가지는 결함 때문이 아니라, ① 애당초 진리 기능주의가 내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② 기능주의가 진리 다원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원론적 진리 이론과 핵심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혼합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에 관해서는, 기능주의가 최근 진리 다원주의 관련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여러 지적들이

18) Lynch (2009), p. 90.

19) Ibid., p. 91.

제기되었다.<sup>20)</sup> 예컨대 기능주의는, 원자 명제의 논의 영역이 서로 배타적으로 분명하게 구획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수 17은 아름답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논의 영역에 걸친 원자 명제를 어느 논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 등에 직면한다.<sup>21)</sup> 반면에 본고의 논의는 ②에 주목 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 절에서 상술할 의미의 조합적 설명이다.

#### 4. 의미의 조합적 설명

기능주의가 진리에 대한 ‘다원주의’인 이유는, 진리 속성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서는 아니다. 이는 린치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생각이다.<sup>22)</sup> 그의 기능주의는, 진리-역할이라는 기능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동일한 진리 속성이 서로 다른 여러 논의 영역에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기능주의는 발현된 상위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가 아니라, 논의 영역에 따라 기저 속성들이 상위 속성

20) 예를 들어 타폴렛은 타당한 추론에서의 진리의 보존이 왜 진리에 관한 일상적 개념의 일부가 될 수 없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린치의 대안이 여전히 불만족스럽다고 말한다.(Tappolet 2010) 코리 라이트는, 린치의 기능주의가 혼합 추론의 문제에 대항하는 반대급부로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다원주의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Wright 2005) 카푸토는 린치의 발현 관계가 비일관적인 형이상학적 요구들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Caputo 2012)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 가장 심각한 비판은 데이빗의 비판이다. 그는 발현을 의존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논의 영역에 걸쳐 단일한 진리 속성 **그 자체** 외에는 어떠한 다른 기저 속성도 진리-역할을 하는 속성의 본질적 특징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귀결이 나옴을 논증한다.(David 2013)

21) 물론 린치 자신도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나름의 답변을 시도한다. Lynch (2009), pp. 78-82.

22) “린치는 용어 ‘참’이 [...] 하나의 속성을 뽑아내는 하나의 개념을 표현한다고 옹호한다. 진리는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뜻에선 여럿이다. 즉, 참임이라는 하나의 속성이 다른 논의 영역에 속하는 명제들의 다양한 다른 속성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David 2013, p. 48)

을 발현하는 관계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다원주의이다. 이 점에서 기능주의는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전혀 어색한 주장이 아니다. 논의 영역의 다원성과 진리 속성의 일원성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진리란 무엇인가(what is truth)?”라는 질문은 “진리는 무슨 속성 또는 관계인가?”라는 질문으로도 읽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경우에서 “진리 담지자가 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what is it for a truth bearer to be true)?”라는 질문으로 읽힌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자. 후자의 질문으로 읽는다면, 기능주의는 진리의 다원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정당하게 분류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논의 영역의 다원성은 논의 영역에 속한 명제들의 의미에 의해서 결정됨을 돌이켜 보자. “1 더하기 1은 2이다.”와 “텅스텐은 질산에 용해된다.”의 진리가 다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명제들의 의미에 의해 제공되는 내용이 각각 서로 다른 논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 명제에서 그 명제의 진리 조건 즉 어떤 조건에서 참이 되는가의 결정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그 원자명제의 의미에 의해서 제공된다. 명제 P가 도덕적으로 참인 이유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P가 ‘살인은 나쁘다’라는 의미를 담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복합 명제의 진리는 구성요소 원자 명제의 진리에 의해서만 곧장-참이다.) 따라서 린치의 진리 이론은 명제의 의미가 어느 논의 영역에 속하는지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진리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진 개념을 명료화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만약 그렇다면,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같이 진리에 의존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종류의 의미론에는 린치의 기능주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약  $3.0 \times 10^8$ m/s이다.”의 의미를 이 명제의 진리 조건 즉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그 조건은 상위 속성으로서의 진리 속성에 의존해서 주어질 것인데, 그 상위 속성은 다시 자연과학적 논의 영역의 기저 속성으로부터의 발현 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그 기저 속성이 자연과학적 논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그 명제의 의미에 의존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의미 설명이 순환적이게 된다.

하지만 이 우려는 기능주의에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이 우려는 다원주의 뿐 아니라 모든 전통적인 진리 이론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요구이다. 가령 전통적인 진리 대응론에서 <p가 참이다 ↔ p는 사실 f와 대응한다>는 도식을 통해 진리를 설명하려면 p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주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의미를 진리 조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러한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 축소주의 진영의 관점에서는 논점선취에 해당한다. 셋째, 진리 조건적 설명에서 설명 역할을 수행하는 진리 속성은 상위 속성인 F이지만, 논의 영역의 기저 속성인 F\*는 F와 동일한 속성이 아니다.<sup>23)</sup> 따라서 논의 영역의 결정과 진리 조건 사이의 순환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우려는 심각하지 않다. 그렇다면 심각한 우려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기능주의가 다원주의적인 이유는 진리 속성이 여러 종류가 다원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논의 영역에 따라 진리 속성이 발현되는 관계가 다원적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 조건적 설명 하에서, 진리-발현 관계의 다원성은 그 진리 속성을 지니는 명제의 의미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기여를 해야 한다.<sup>24)</sup> 그리고 기능주의가 옹호하는 다원성은 논의 영역에 따른 발현 관계의 다원성이며, 이 다원성은 오직 원자 명제에만 적용되는 반면에 복합 명제는 구성요소 원자 명제의 논의 영역에 상관없이 곧장-참이라는 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제 2절에서 예로 들었던 A, B, 그리고 A&B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의미의 조합성(compositionality) 원칙들<sup>25)</sup> 중 하나인, 복합 명제를 포함한

23) Lynch (2013), p. 30.

24) “내용은 언제나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진리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을 발현하는 것은 다원적이다.”(Lynch 2013, p. 141) “[...] 의미는 다원적으로 발현된다.”(Ibid., p. 145)

25) 의미의 조합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한국”과 “사람”이 합쳐서 “한국사람”을 이루는 명사끼리의 조합, 둘째는 “한국”과 “은 국가이다.”가 합쳐서 “한국은 국가이다.”를 산출하는 이름-술어 조합, 셋째는 명제와 괄호, 그리고 논리연결사로 조합되는 복합명제의 조합이다. 혼합의 문제에서 중심적으로 고찰되는 조합성은 세 번째 종류의 조합성이므로, 본 문의 서술에서도 이 조합성에 초점을 둔다.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요소 표현의 의미에 의해 조합된다는 직관적으로 분명한 원칙을 받아들이자. 복합 명제의 의미 조합성은, 비록 유일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개 진리 조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A와 B의 의미로부터 곧바로 A&B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며, 그 대신 A와 B가 각각 참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으로부터 A&B가 참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론을 통해서 복합 표현의 의미를 제공받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라는 견해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 방식에 따르면, 올바른 조합적 의미 설명 방식은 A가 참이 되는 조건과 B가 참이 되는 조건을 제공하는 적절한 진리 이론으로부터 A&B가 참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다.<sup>26)</sup> 이를 더 단순화해서 말하면, 우리는 A와 B의 진리 조건으로부터 A&B의 진리 조건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능주의에서도 A&B와 같은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을 A와 B의 진리 조건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도출에서 진리 조건의 다원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 속성이 발현되는 조건의 종류에 대한 다원성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가가 의문이다. 곧장-참 개념의 정의를 따를다면, A&B의 진리 속성 발현은 A와 B의 논의 영역 및 그들 각각의 진리 속성 발현 관계와 상관없이, A가 참이고 B가 참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의미 설명과 일원론적 진리-조건적 의미 설명 사이에는 차이가 없게 되고 만다. A&B의 진리 조건은 “‘A&B’가 참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A이고 그리고 B라는 것이다.”로 제시된다. 여기서 만약 우변의 ‘A’가 ‘1 더하기 1은 2이다.’에서 ‘살인은 나쁘다.’로 바뀐다면, A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의 종류에서 대단히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렇게 바뀌더라도 A&B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의 종류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의 진리 조건은 변함없이 그 연언이 곧장-참이라는 조건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기능주의에 의하면,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은 다원적일 수 없으며 곧장-참이라는 단 한 종류의 조건만을 지닌다.

물론 런치 자신도 의미를 기능주의적으로 설명한다. 그의 의미론적 기능

---

<sup>26)</sup> Davidson (1967) 참조.

주의(semantic functionalism)에 의하면, 의미의 결정에는 진리 조건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기여를 해야 하는데, 진리 발현 관계가 다원적이므로 진리 다원주의는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과 개념 역할 의미 설명 등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의미 설명 방식으로부터 중립적이며 따라서 그 모두와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의미론적 기능주의의 주장은 모든 의미의 결정에는 진리 조건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리 조건에 포함된 진리는 다원적으로 발현된다는 것, 이 두 가지이다. 그러나 이 두 주장은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의 도출에서 구성 명제의 진리 다원성이 제공하는 기여를 해명하지 않는다. 혹자는 요소 명제의 진리 조건은 그 명제의 진리 속성을 발현하는 기저 속성이고, 요소 명제의 진리 속성에 의해 복합 명제의 의미도 조합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복합 명제의 의미도 요소 명제의 기저 속성에 의존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그러한 이행적 의존관계가 기능주의에서 성립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존관계는 일원론적 진리 이론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관계라는 점이다. 그 의존관계에서 기능주의의 중요한 제안이 포함되는 대목은 ‘발현’이다. 하지만 이 설명에서 발현 관계를 누락시키더라도 일원론적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똑같이 의미를 조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기능주의적 진리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의미 설명과 같은 진리의 중요한 역할에서 기능주의가 가진 중요한 제안이 이토록 간단히 누락될 수 있다면 기능주의를 선택할 동기는 감소할 것이다.<sup>28)</sup>

앞서 우리는 원자 명제가 어느 논의 영역에 속하는가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결정하는 것이 그 명제의 의미라는 전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복합 의미는 그것의 부분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는 조합성 원칙도 받아들였다. 기능주의는 진리-발현 관계에 대한 다원주의이므로, 만약 복합 의미가 진

<sup>27)</sup> Lynch (2009), pp. 129–45. 여기서 린치가 ‘진리 조건’의 개념을 대단히 느슨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정은 진리 다원주의 일반이 따라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진리 다원주의와 진리 조건에 관한 논의는 또 다른 독립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필자의 후속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sup>28)</sup> 이 부분에서 중요한 통찰과 지적을 제공해 주신 논평자와 또 다른 익명의 연구자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리 조건적으로 설명된다는 가정을 추가로 받아들인다면, 의미-발현에 대한 다원주의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 조건이란 진리 속성이 다양한 기반들 중 하나로부터 발현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자 명제들이 공유하는 진리 속성 자체는 린치가 주장하듯이 단일하다 하더라도, 원자 명제가 진리 속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의 종류는 그 원자 명제가 속한 논의 영역에 따라 다양해야 한다. 그리고 원자 명제의 진리 조건의 다원성은 그 원자 명제로 구성된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을 결정하는데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성 원리에 의하면 복합 명제의 진리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의 조건 즉 그것의 진리 조건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구성요소 명제의 (다원적으로 발현된) 진리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능주의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미-발현의 다원성은 복합 명제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기능주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이다. 복합 표현의 조합적 의미 설명은 진리 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설명이 진리 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설명이 일원론적 진리 이론과 아무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기능주의가 조합적 의미 설명을 진리 조건적으로 해낼 수 있음은 필자도 동의한다. 그런데 기능주의는 진리가 수행하는 기능에 호소하여 진리 속성을 본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기능에는 의미를 조합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하는 기능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미 조합성의 진리 조건적 설명이 진리 속성 발현 관계의 다원성이라는 기능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귀결이다. 만약 기능주의가 원자 명제의 진리-발현 다원성을 원자 명제로부터 구성된 복합 명제의 의미와 밀접히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복합 명제의 조합성에 대한 진리 조건적 설명이 진리-발현 관계가 다원적이라는 기능주의의 핵심 주장으로부터 단절된다면, 기능주의적 의미 설명은 결국 일원론적 진리 조건적 설명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원론자들도 논의 영역의 다원성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sup>29)</sup>

---

29) 본고의 논의전개에 대해 한 연구자는 애당초 린치의 기능주의를 진리 다원주의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오도라고 지적하였다. 기능주의는 실제로는 일

의미가 진리 조건적으로 이해되는 한, 린치는 A&B의 진리 조건에 의해 A와 B의 진리 조건을 이끌어 내는 설명 방향을 택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에드워즈를 비롯한 온건한 다원주의자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A&B의 진리는 A와 B의 진리에 의해 곧장-참이 되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린치는 의미에 대한 진리 조건적 설명, 보다 넓게는 진리에 의존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의 기능주의는 분명히 진리를 본체적 속성으로 받아들이며 진리의 설명력을 공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리치의 최소주의적 조합성 설명과 같이, 진리의 본체성과 설명력을 부정하는 축소주의적 접근은

원론과 아무 차이가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린치 둘 다, 기능적 발현 속성으로서의 진리가 일원적 진리와 아무 차이가 없는 속성이 라고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필자의 주장은, 적어도 의미 설명과 같은 진리의 본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일원적 진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결적으로 이 문제의 이면에는 두 견해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서의 다원적 진리들이 특정한 역할에 있어서는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 속성들은 각각이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역할에 따라 존재론적으로도 개별화된다는 주장이다. 위 연구자의 지적은 후자의 견해를 전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본고는 두 주장 중 어느 쪽도 시인 혹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의미 설명과 같은 중요한 역할에서의 일원론적 진리와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 진리 다원주의의 이론으로서의 매력을 침식하는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 다른 익명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원자 명제의 의미 즉 진리 조건이 복합 명제의 의미 즉 진리 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이 조합성 원리이다. 그리고 원자 명제의 의미는 또한 원자 명제가 지닌 진리의 다원성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결정한다. 하지만 이 두 괴谬정향 사이에 설명적 관계가 성립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원자 명제의 진리-발현 다원성은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과 독립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만약 이 둘이 독립적이라면 기능주의는 더 이상 진리 다원주의가 아니게 된다. 기능주의가 혼합의 문제를 피하는 핵심 전략은 진리 속성을 단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원자 명제의 진리-발현 다원성이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기능주의는 다원주의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만다.

두 분 연구자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린치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선택이다.<sup>30)</sup>

## 5. 맷음말

서두에서 밝혔듯이 혼합의 문제는 진리 다원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그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의 중요한 주장이 상당히 후퇴해야 한다. 린치의 기능주의는 혼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능주의를 진리 일원론과 차이가 없는 선까지 후퇴시키는 양보를 감수해야 했다. 본고에서 검토한 복합 명제의 조합적 의미를 진리 조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철학자들은 진리가 수행하는 본질적인 역할 중 하나가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이라고 믿는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혼합의 문제에 대한 기능주의의 해결은 오히려 일원적 진리 이론의 우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례로까지 간주될 수도 있다. 물론 단일한 진리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온건한 다원주의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sup>31)</sup> 그러나 코트노어와 에드워즈 사이의 논쟁에서 확인되듯이, 온건한 다원주의에서도 일원적 진리 개념의 침투는 예민하게 경계되는 이론적 부담인 것만은 분명하다.

본고가 제기하는 우려는 기능주의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온건한 다원주의 전반에 취하는 전략은, 혼합의 문제를 복합 명제의 진리 속성 문제로 규정한 다음, 복합 명제의 진리 속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다원주의를 후퇴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의 진리 속성 결정 관계 방향을 일방향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원주의적 원칙이 단일한 진리 속성보다 더 우선성을 지니게끔 한다. 온건한 다원주의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고수하는 한, 기능주의에 대한 본고의 우려는 온건한 다원주의 전반에 걸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

30) 조합성에 대한 축소주의적 설명은 Horwich (2001) 참조.

31) Pedersen and Wright (2013), p. 3.

## 참고문헌

- Beall, J. C. (2000), "On Mixed Inferences and Pluralism About Truth Predicates", *Philosophical Quarterly* 50(200): pp. 380–2.
- Caputo, S. (2012), "Three Dilemmas for Alethic Functional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62(249): pp. 853–61.
- Cotnoir, A. J. (2009), "Generic Truth and Mixed Conjunctions: Some Alternatives", *Analysis* 69(3): pp. 473–9.
- David, M. (2013), "Lynch's Functionalist Theory of Truth", in *Pedersen and Wright*, pp. 42–68.
- Davidson, D. (1967), "Truth and Meaning", i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 Edwards, D. (2008), "How to Solve the Problem of Mixed Conjunctions", *Analysis* 68(298): pp. 143–9.
- \_\_\_\_\_ (2009), "Truth-Conditions and the Nature of Truth: Re-Solving Mixed Conjunctions", *Analysis* 69(4): pp. 684–8.
- \_\_\_\_\_ (2013), "Truth, Winning, and Simple Determination Pluralism", in *Pedersen and Wright*, pp. 113–22.
- Horwich, P. (2001), "Deflating Compositionality", in P. Kotatko et al. (eds), *Interpreting Davidson*, CSLI, pp. 95–109.
- Lynch, M. P. (2004), "Truth and Multiple Realizability",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2(3): pp. 384–408.
- \_\_\_\_\_ (2009), *Truth as One and Many*, Clarendon Press.
- \_\_\_\_\_ (2013), "Three Questions for Truth Pluralism", in *Pedersen and Wright*, pp. 21–41.
- Pedersen, N. J. L. L. (2006), "What Can the Problem of Mixed Inferences Teach Us About Alethic Pluralism?", *The Monist* 89(1): pp. 103–17.
- \_\_\_\_\_ (2010), "Stabilizing Alethic Pluralism", *Philosophical*

- Quarterly* 60(238): pp. 92–108.
- \_\_\_\_\_ (2011), “Truth As One(s) and Many: On Lynch’s Alethic Functionalism”, *Analytic Philosophy* 52(3): pp. 213–30.
- Pedersen, N. J. L. L. and Wright, C. D. (eds.) (2013), *Truth and Pluralism: Current Debates*, Oxford University Press.
- Tappolet, C. (1997), “Mixed Inferences: A Problem for Pluralism About Truth Predicates”, *Analysis* 57(3): pp. 209–10.
- \_\_\_\_\_ (2000), “Truth Pluralism and Many-Valued Logics: A Reply to Beall”, *Philosophical Quarterly* 50(200): pp. 382–5.
- \_\_\_\_\_ (2010), “Review of Michael P. Lynch, Truth as One and Many”, *Mind* 119: pp. 1193–8.
- Wright, C. D. (2005), “On the Functionalization of Pluralist Approaches to Truth”, *Synthese* 145(1): pp. 1–28.
- Wright, C. (1992), *Truth and Objectiv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Minimalism, Deflationism, Pragmatism, Pluralism”, in M. P. Lynch (ed.), *The Nature of Truth*, Cambridge MA: MIT Press: pp. 751–89.

논문 투고일	2015. 03. 13
심사 완료일	2015. 03. 15
게재 확정일	2015. 03. 18

## The Alethic Functionalism and the Mix Problem

Donghyun Kim

---

The mix problem, which includes both of the problem of mixed inferences and the problem of mixed conjunctions, is a serious crux threatening the alethic pluralism. To overcome this problem, various solutions have been suggested by the pluralists. Among them, Michael Lynch's alethic functionalism,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s nowadays, insists that the truth property is one but the relations in which the property is manifested are plural in accordance with domains of discourse where the truth bearer is discussed. Thus, according to Lynch, the functionalism can avoid the mix problem, even adhering a pluralism on truth. I agree that his functionalism can avoid the mix problem, but I will argue that what his solution possible is that his functionalism retreats up to the line where it has no difference with the monism in some significant aspect of truth. To show this, I will focus on the issue of compound propositions, the key notion of the mix problem. I will argue that, on the basis of plain truth which the functionalism suggests, and in accounting the meanings of compounds compositionally in truth-conditional wa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functionalism and monism. Therefore, the motivation to choose the functionalism rather than truth monism is undermined.

**Key Words:** Functionalism, Alethic pluralism, Mix problem,  
Compound proposition, Compositionality